

글로벌 시대의 기호학

송 효 섭*

1. 글로벌/로컬
2. 소쉬르/퍼스
3. 구조주의에서 화용론으로
4. 화용론에서 구조주의로
5. 통합의 메타언어를 위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가치와 로컬 가치가 결합하는 방식과 연루된 기호학적 문제들을 탐구한다. 기호학은 두 개의 다른 전제를 갖는 이론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오늘날 이들의 결합을 통해 또 다른 기호학 이론들이 생성되고 있다. 기호학의 상반된 경향에서 찾아지는 의미들이 ‘글로벌’과 ‘로컬’에서 찾아지는 의미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기호학에서의 이론의 결합방식에 대한 탐색은 ‘글로벌’에서의 ‘글로벌’과 ‘로컬’의 결합 방식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호학은 소쉬르의 구조주의 기호학과 퍼스의 화용론적 기호학을 그 출발로 한다. 이들 이론은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여러 기호학자들에 의해 창안된 새로운 메타이론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글은 구조주의에서 화용론으로 나아가는 기호학의 경향과 화용론에서 구조주의로 나아가는 기호학의 경향에서 찾아지

* 서강대학교 교수

는 여러 방법론적 문제들을 탐색한다.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글로벌 가치가 로컬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과 로컬 가치가 글로벌 가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각과 방법론이 필요한 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가치로 편향된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현실과 보다 직결된 이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충과 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보편타당한 방법론은 기호학에서 추구된 통합의 메타언어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글로벌’이 단지 지역성의 문제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이나 의미작용과 같은 인식론적인 문제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호학의 이론적 전개는 이러한 ‘글로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글로벌리제이션, 로컬리제이션, 글로벌리제이션, 구조주의, 화용론, 기호학

1. 글로벌/로컬

최근 ‘글로벌’ 혹은 ‘글로벌리제이션’이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는 듯 하다. 글로벌리제이션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그것이 갖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로컬리제이션이 대두되었는데, 그러한 로컬리제이션이 글로벌리제이션과 만나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킨 것이다.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이 합성되었다는 것은 이들 두 개념이 현실에서 완전한 반대의 위치에 서지 않음을 뜻한다. 글로벌리제이션이 로컬리제이션을 혹은 로컬리제이션이 글로벌리제이션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결합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보다 나은 문화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회이론에서는 ‘글로벌/로컬’의 양향대립을 단지 ‘로컬’이 ‘글로벌’에 비해 종속적인 것으로 보는 ‘주/종’의 양향대립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복수화와 상대화를 통해 로컬적인 이종성과 세계-시스템 모델 안에서 로컬하게 위치지어진 정치적 투쟁들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다.²⁾ 이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가치가 해체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글로벌리제이션이 대두된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특수성을 넘어서 인류의 문화사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경향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이나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같은 문화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경계의 해체가 글로벌리제이션 즉 세계화의 흐름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계화가 반드시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인류가 각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어느 순간 교류가 이루어질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갈등과 충돌 그리고 통합과 같은 것이다. 이들은 세계화를 추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와 같은 것이다. 아마도 오늘날 글로벌리제이션이라 하는 것도 그러한 것일 터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획일성과 경직성이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무역장벽이 없어질 경우, 토착적인 산업이 그 소비자를 잃게 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발견시대 이후 전세계에 불어닥친 콜로니얼리즘의 열풍은 하나의 척도로 문화를 재단하고 변형시키는 그 시대의 글로벌리제이션이었다. 그 시대의 학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화와 관련하여 빅토리아 시대의 인류학은 진화론을 척도로 세계의 각기 다른 다양한 문화들을 평가하려 했다. 이러한 모든 흐름은 이른바 글로벌리제이션이 단지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님을 말해준다. 경계가 있는 곳은 언제나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반작용이 존재하며, 그러한 반작용은 다시금 경계를 새롭게 지으려는 반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일

2) Rob Wilson & Wimal Dissanayake, “Introduction,” eds. Rob Wilson & Wimal Dissanayake, *Global/Local: Cultural Production and the Transnational Imagina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6.

어나는 보편적인 흐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로트만은 이를 기호계의 중심과 주변 간에 일어나는 순환과 교체의 작용으로 설명한 바 있다.³⁾

글로벌리제이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그 기호학적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글로벌리제이션을 말할 때, 가령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와 같은 상투적이며 모호한 말로 얼버무리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반대관계에 있는 것을 통합할 때, 우리는 쉽게 절충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앞서와 같이 국지성을 띠어야만 세계성을 떨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절충론의 하나다. 결국 국지적인 것을 현양시킴으로써 그것이 갖는 강점이 부각되고 그리하여 세계에 통하는 보편성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국지성이 갖는 어떤 문제도 경쟁적 관계의 설정을 통해 무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국지적인 것이 갖는 강점과 세계적인 것이 갖는 강점만을 받아들여자는 절충론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또 다른 절충론이라 할 수 있다. 절충론의 문제는 두 반대 개념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두 개념을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두 반대 개념을 합성할 때 이러한 절충론이 가능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이 일종의 가치론적 위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이나 ‘로컬’이라는 말이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글로벌’이라는 말 역시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데, 그 가치는 ‘글로벌’과 ‘로컬’의 개념 간에 존재하는 위계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계적 관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체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데, 그 시스템을 작동하는 기제가 바로 기호학적 의미에서의 코드인 것이다. 그 코드는 그 시스템이 가동하는 컨텍스트 즉 맥락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개념도 그러한 컨텍스트를 통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글로벌’이라는 말에 함의된 ‘글로벌’과 ‘로컬’의 양향대립은 그것과 연계되는 또 다른 양향대립을 불러일으킨다. 가령 다음과 같은 양향대립

3) Yuri M. Lotman,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trans. Ann Shukma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pp.146-147 참조.

항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글로벌	로컬
전체성	부분성
보편성	특수성
집단성	개인성
객관성	주관성
연역성	귀납성
추상성	구체성
거시성	미시성

<<표1>> ‘글로벌’과 ‘로컬’을 변별하는 의소들

이러한 양항대립항들은 의소⁴⁾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두개의 계열을 이룸으로써 이들 간에는 일종의 계열체적 관계⁵⁾가 존재한다. 반드시 같지만은 않은 이러한 같은 계열의 항들이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개념을 여러 의미층위에서 변별해줌으로써, 이들 개념에 다양한 함의를 부여한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함의를 갖는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개념이 합성됨으로써 펼치게 될 새로운 의미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글로벌’의 새로운 함의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글로벌’이라는 합성어에서 발견되는 기호학적 연계지점을 중심으로 기호학이 이 시대에 문화를 해석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

4) 의소란 음운론에서의 변별적 자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미작용의 최소단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소란 관계범주 안에서만 존재할 뿐이며, 그 자체로서의 실체를 갖지는 않는다. 글로벌과 로컬을 구분하는 자질로서 여기에서 제시된 의소들은 각각 의미범주를 형성하고, 이들 의미범주가 합하여져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양항대립의 항이 존재할 때, 이들은 의소보다 큰 범주로서 의미소⁵⁾sememe라 할 수 있다. 의소와 의미소에 대해서는, A.J. Greimas & J. Courtés, *Semiotics and Language: An Analytical Dictionary*, trans. Larry Crist and Daniel Patte, and other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pp.278-280.

5) ‘계열체적 관계’에 대해서는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84, p.171 참조.

수 있을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기호학에서 발견되는 전혀 다른 두 개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글로컬’이라는 새로운 합성어를 낳은 시대에 텍스트를 읽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소쉬르/퍼스

앞서 ‘글로벌’과 ‘로컬’의 대립과 마찬가지로, 기호학에는 두 개의 반대되는 관점이 존재한다. 소쉬르를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 기호학과 퍼스를 중심으로 한 화용론적 기호학이 그것이다. 이들 기호학이 결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소쉬르와 퍼스 각각의 기호학 이론만으로는 결코 이들은 결합될 여지를 갖지 않는다. 이들이 결합될 수 있다면, 소쉬르와 퍼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하다. 새로운 이론은 새로운 메타언어를 필요로 하는데, 소쉬르와 퍼스의 이론적 접맥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새로운 메타이론 안에서이다. 그런데 필자는 글로컬 시대와 관련하여 이러한 모험적 시도가 매우 유의미함을 말하고자 한다. 앞서 ‘글로벌’과 ‘로컬’의 계열체에 속하는 여러 의소들이 바로 기호학에서 소쉬르와 퍼스의 대립관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이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메타이론의 창출이 글로컬 시대에 맞는 기호학적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소쉬르와 퍼스의 이론을 통해 이들 이론이 왜 앞서의 양향대립의 계열체에 속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기호학은 하나의 관점이며 방법이다. 세계를 기호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해석은 담론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학은 필연적으로 생산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쉬르와 퍼스는 전혀 상반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이들을 구분하는 변별성은 ‘기호’란 무엇인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나타난다.

소쉬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파악한다. 반면 퍼스는 기호와 대상 그리고 해석소의 삼항적 작용을 통해 파악한다. 소쉬르가 말하는 기표와 기의는 모두 시스템 속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기표는 말을 통해 발화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어떤 체계 속에 들어가 공통된 이미지를 형성한 것이어야 한다. 기표가 가리키는 대상 역시 현실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체계 안에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소쉬르가 말하는 기호는 언제나 스스로 현실을 지시하지 못한다. 반면 퍼스의 기호는 대상을 직접 나타낼 수 있다. 바로 앞에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을 나타내는 기호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호는 단지 그 사물을 나타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타냄을 통해 새로운 기호 즉 해석소를 생산한다. 가령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생성시켰다면, 나는 다른 누구와는 다른 내 나름대로의 기호를 만들 어낸 것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나의 인지작용이 개입한다. 다시 말해 ‘내 마음 안에서’ 기호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형성된 기호라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를 지향한다. 그것은 그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객관적인 기호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퍼스가 말하는 1차성, 2차성, 3차성의 단계는 이러한 기호가 공통된 의미를 갖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⁶⁾

여기에서 소쉬르의 기호학과 퍼스의 기호학을 다소 도식적으로 비교해보기로 하자.

6) Ed. Charles S. Hardwick, *Semiotic and Signifys: The Correspondence between Charles S. Peirce and Victoria Lady Welb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7, p.31 참조.

	소쉬르	퍼스
나타내는 것	체계 속의 기표	체계와 무관한 기호
나타내어지는 것	체계 속의 기의	체계와 무관한 대상
결합 법칙	자의적	맥락적
형성주체	사회와 같은 언어공동체	공동체 안의 개인
기호의 작용	지시작용	의미작용

<<표2>> 소쉬르와 퍼스 기호 이론의 대립적 특성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가 포착해야 할 것은 이른바 이들 이론이 드러내는 변별적 자질에 관한 것이다. 앞서 소쉬르와 퍼스의 이론을 양향대립으로 파악한다고 하였는데, 그 양향대립은 위 도식에서처럼 자질의 있고 없음을 통해 기호를 규정하는 변별적 자질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자질은 앞서 <<표1>>에서 보았던 ‘글로벌’과 ‘로컬’의 대립을 규정하는 자질과 일치한다. 소쉬르의 이론은 체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전체성/, /+거시성/의 자질을 가지며, 그 체계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일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편성/, /+집단성/, /+객관성/의 자질을 갖는다. 그러한 체계는 이미 전제된 규칙인 랑그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연역성/, /+추상성/의 자질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해 퍼스의 이론은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이 단지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국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부분성/, /+특수성/, /+개인성/, /+미시성/의 자질을 가지며, 기호작용에 인간의 마음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주관성/의 자질을 갖는다. 그리고 퍼스가 말한 기호작용은 그것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귀납성/의 자질을 갖는다. 이와 같이 소쉬르와 퍼스의 이론을 구분하는 자질은 앞서 ‘글로벌’과 ‘로컬’의 대립에서 찾아진 의소들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기호학 이론에서의 통합이 ‘글로벌’과 ‘로컬’의 통합을 통해 만들어진 ‘글로벌컬’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렇다면 과연 소쉬르와 퍼스의 이론을 구분하는 변별적 자질은 절대

적인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의 개념은 완전한 반대 개념으로서 어떤 통합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글로벌’과 ‘로컬’이 합성어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는 것처럼,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도 기호 개념에 대한 수정을 통해 새로운 메타층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들의 뒤를 잇는 기호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추적해보기로 하자.

3. 구조주의에서 화용론으로

기호학적인 구조분석의 체계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양향대립이다. 이 세상의 어떤 체계보다도 가장 보편적으로 보이는 양향대립의 체계는 소쉬르가 말한 ‘의미는 차이에서 나온다’는 기본적인 명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⁷⁾ 실체가 아닌 형식만이 랑그에 속하며 이에 따라 분석과 기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야콥슨을 비롯한 프라그 학파의 언어학자들은 변별적 자질, 양향대립, 유표성과 같은 개념을 발전시켰다. 변별적 자질⁸⁾은 두 개의 음소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p/와 /b/, /t/와 /d/, /k/와 /g/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성음인가 유성음인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무성음 혹은 유성음의 자질이 변별적 자질이 된다. 이러한 자질은 음소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그 제약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변별적 자질에서 음소, 형태소, 낱말, 구, 문, 발화 혹은 텍스트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제약은 점점 약해지는데,⁹⁾ 이는 이른바 구조주의에서의 구조가 어디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변별적 자질은 이른바 음운론의 기본단위인데, 기호학적 분석은 단지 음소체계의 분석에 머무르지 않는다. 언어학자로서의 야콥슨의 관심은 이러한 음운론적 체계로부터 도출된 여러 구조적 개념들

7) Saussure, op.cit., p.166.

8)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s 1*, The Hague: Mouton, 1971, pp.464-465.

9)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s 2*, The Hague: Mouton, 1971, pp.280-281.

을 어떻게 텍스트나 담화분석에 폭넓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었다. 그가 다룬 것은 시를 비롯한 언어예술 전반은 물론 민속, 영화, 그림, 음악 등과 같은 언어예술을 넘어선 영역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그의 언어중심적인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결국 기호학적 분석의 대상은 앞서 말한 단위들 가운데 가장 구조적 제약이 약할 수밖에 없는 담화와 텍스트가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적 관점은 이러한 것들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려 한다. 이는 언어학 특히 음운론이 어떻게 다른 학문에 적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야콥슨의 해법은 언어학에 적용될 원리를 토대로 맥락을 끌어들이며 그러한 원리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언어학적 원리에 토대를 둔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활용된다.

앞서 변별적 자질의 경우를 살펴보자. 변별적 자질만으로는 담화나 텍스트의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향대립’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진다. 이는 변별적 자질이 갖는 양향대립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추출해 음소체계 이외의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이끌어낸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이른바 소쉬르가 말한 ‘형식’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우리는 ‘신사’와 ‘숙녀’의 양향대립을 어느 소설 텍스트에서 추출했다고 하자. 신사와 숙녀는 대립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신사와 숙녀를 가르는 기준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젠더의 자질에 있다. 그렇다면 이를 제외한 다른 수많은 자질들은 신사와 숙녀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이럴 경우, 바로 이러한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엄격한 구조적 공리를 적용한다면, 이러한 자질들은 모두 파물에 속하는 것으로 우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분석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설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단지 이러한 변별적 자질로만 분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양향대립의 틀은 레비스트로스, 그레마스와 같은 구조주의자들에게 수용되면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단지 양향대립을 구성하는 변별적 자질에만 초점

을 맞춘 분석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레마스의 경우, 양향대립은 의미의 본질적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담화의 가장 심층에 존재한다.¹⁰⁾ 의미생성 행로의 가장 심층에 존재하면서 그것은 표층이나 담화 층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가 심층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기호사각형은 이러한 양향대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레마스의 의미생성 행로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심층의 기호사각형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층에서 표층 그리고 담화 층위 간에 이루어지는 기호작용을 통해서만 이러한 양향대립이 드러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단지 양향대립만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은 양향대립의 항들이 단지 ‘소극적으로 정의되는’¹¹⁾ 형식적 자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실체성은 어떤 맥락을 통해 규정되어야 하기에 맥락의 문제 역시 함께 연루될 수밖에 없다. 실체에 관한 한, 우리는 예름슬레우가 제시한 내용-실체와 표현-실체의 층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¹²⁾ 비록 그가 말한 언리학(glossematics)¹³⁾에서 독자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실체 역시 형식에 의해 구조화되어 생겨나는 것으로 본 것이다.¹⁴⁾ 예름슬레우가 이와 같이 실체의 층위를 제안한 것은 이후

10) A.J.Greimas, *Du sens*, Paris: Seuil, 1970, pp.136-142 참조.

11) Saussure, op.cit., p.162.

12) Louis Hjelmslev, *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trans. Francis J. Whitfield, Madison, Milwauke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9, pp.47-60 참조.

13) 예름슬레우는 언어학과 비언어학을 구분하면서, 언어학이 표현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앞으로 질서화될 가능성을 갖는 의미purport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언어학적 형식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언어학적 형식은 언어의 관점에서 비언어학적 본질들에 그것을 투사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실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의 대수학이라고 규정한 이러한 형식의 연구를 예름슬레우는 언리학이라 명명한다. Ibid., pp.78-80.

14) 예름슬레우는 실체가 기능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단지 그 자체로 기능적 이면서 어떤 식으로든 주어진 “형식”과 관계되는 하나의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실체를 형식으로 끌어들었다. 소쉬르가 실체를 파롤의 영역으로 보고 랑그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입장과 다른 것이다. Ibid., p.80.

서사학자인 채트먼이 줄거리와 담화를 각각 형식과 실체로 구분하여 논의한 것¹⁵⁾처럼 텍스트의 분석과 같은 구조주의의 응용에 널리 적용된다. 실체로부터 모든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는 소쉬르가 말한 기호학적인 대전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형식이 실체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 한다면, 실체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형식화시킬 대상이 없는 형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름슬레우가 맥락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단지 실체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은 아니다. 맥락은 가변적인 것이고 이에 따라 다른 의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는 1차적인 외연기호학과는 다른 층위에 2차적인 내포기호학을 설정한다. 내포기호학은 표현과 내용 국면을 모두 표현으로 볼 때 그에 내용이 덧붙여지는 기호학을 말하는데,¹⁶⁾ 이러한 새로운 층위가 덧붙여지는 과정은 그러한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맥락이 고려되어야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결국 양향대립이라는 형식적 구조가 담화나 텍스트를 분석할 때, 실체나 맥락과 같은 성가신 문제들과 필연적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연루시키는 방식은 가령 앞서 예름슬레우가 언리학에서 다루는 영역을 형식으로 한정했듯, 야콥슨 역시 구조주의의 체계를 허물지 않는 한도에서 절묘한 절충을 이루어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양향대립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반대 위상을 갖는 두 항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두 항이 맥락에 따라 일종의 위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로 재정립된다. 위계관계는 야콥슨이 담화 구조를 설명할 때 즐겨 사용하는 개념이다. 가령 ‘지배소’¹⁷⁾와 같은 개념이 대표적인데, 텍스트의 구조 속에 지배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으로써, 텍스트는 어떤 지향성을 갖게 된다는 이러한 이론은 담화 분석이 단

15)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p.26.

16) Hjelmslev, op.cit., p.114.

17) Roman Jakobson, *Language in Literature*, eds. Krystyna Pomorska & Stephen Rud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p.41-46.

지 형식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의미와 연계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구조에서 분석 단위나 층위의 설정은 텍스트의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텍스트를 기술할 때, 우리는 그것을 텍스트의 구조라 하는데, 이는 단지 텍스트를 도식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갖는 일종의 타입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른 토큰들에서도 기술될 수 있는 보편적 성질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는 그 나름의 특수성을 갖게 되고, 그것은 의미의 지향성으로 나타난다. 지배소라는 개념은 분절 단위와 층위 간의 관계라는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의미지향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컨텍스트를 이끌어들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개념 가운데 가장 언어학적인 것으로 야콥슨이나 트루베츠코이와 같은 프라그마학파가 제시한 ‘유표성(markedness)’¹⁸⁾이 있다. 유표성이란 음소가 어떤 구분되는 자질을 갖거나 갖지 않은 채 구분될 때 이 자질의 갖고 갖지 않음이 결코 등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개념이다. 어떤 음소 자질이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자질이 일반적으로 드러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무표적인 것이고 여기서 벗어날 경우는 유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구분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경우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언어학적인 상황에 따라 대립항 중 하나는 필연적으로 유표적이거나 무표적이 된다. 이러한 논리는 가령 담화를 분석할 때 추출되는 양항대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선/과 /악/은 대립항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도덕율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이들은 결코 등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이 무표적이라면 악이 유표적이고 따라서 선은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악은 제재를 받는다. 감옥은 이러한 유표성이 사회 속에서 실현된 공간을 보여준다.

예를슬레우와 야콥슨의 이론은 분석대상을 형식적으로 가장 강한 결

18) Roman Jakobson, op.cit., p.136.

속력을 갖는 음소체계로부터 담화나 텍스트와 같이 가변적이면서도 모호한 체계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형식성이 어떤 방식으로 해체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성의 해체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가령 구조주의자인 레비스트로스가 문화체계를 분석할 때, 항들 간의 변환을 말한 것은 형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식이 다르게 실현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소쉬르의 이론을 토대로 생겨난 구조주의의 모험이 구조주의의 일반적 공리를 넘어서 설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조주의 기호학의 이론적 토대가 갖는 패러다임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구조주의는 20세기의 사유나 방법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것은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은 보편적인 기호의 법칙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등의 이념이 있으며, 모든 것을 내재성의 규칙으로 설명하는 합리성이 있다. 또 맥락에 구애되지 않고 발견되는 보편적인 규칙이 어디에나 활용될 수 있다는 실용성까지 겸하고 있다. 기호학이 하나의 사유방식이라면, 이러한 사유방식이야말로, 오늘날 글로벌리제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리제이션이 새로운 로컬리제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이러한 구조주의 기호학의 모험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호학이 요구되는 것은 역시 텍스트와 담화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현실의 여러 사행이나 사건들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스의 기호학의 유산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리제이션이 문제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4. 화용론에서 구조주의로

퍼스 기호학의 핵심은 앞서 말했듯, 기호가 작용하는 과정 즉 세미오시스에 있다. 세미오시스는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양항대립의 체계처럼 단혀있지 않다. 세미오시스를 체계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세미오시스는 진행중인 것이며,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가 올 듯한 먹구름이

낀 하늘도 퍼스의 기호학에서는 기호로 간주된다. 먹구름은 곧 비가 올 것이라는 미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표상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수신자의 의도,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같은 것들이 작용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퍼스가 말한 기호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가운데에서의 선택을 통해 해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택은 완결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선택으로 바뀔 수도 있으며, 다른 해석자에게는 다른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상황에 따라 아무런 규칙도 없이 일어나는 것인가? 먹구름을 통해 비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면, 그 해석은 일종의 보편성을 띤 해석이다. 맑은 하늘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올바른 해석에 가까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퍼스가 말한 기호의 해석에 이와 같은 관계적인 경험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제 이러한 기호이론이 담화나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라 하지 않고 ‘해석하는 데’라고 한 것에 유념해야 한다. 퍼스의 기호학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그리 유용하지 않다. 퍼스의 기호는 의미를 계속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틀 속에 한정되지 않는다. 퍼스의 기호학에서 세미오시스는 일종의 사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국지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앞서 ‘글로컬’에서의 ‘로컬’에 해당하는 성격과 상통한다. 국지적이란 기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특정 상황이 존재함을 말한다. 그리하여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텍스트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앞서 구조주의 기호학의 여러 이론가들이 고심했던 맥락의 문제가 여기서는 보다 핵심적인 위상을 갖게 된다. 해석은 맥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하여 생겨나는 여러 유동적 가능성은 이러한 기호학이 갖는 화용론적 성격을 드러낸다.

퍼스의 기호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해석이론으로 정립한 이

론가로 에코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에코의 이론에서 제기된 코드와 맥락의 문제를 통해 앞서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통합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에코는 퍼스의 기호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퍼스가 말한 복잡한 기호개념들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가령 코드와 같은 구조적 개념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록 그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해석의 개방성을 강조한 듯이 보이지만, 그 개방성은 또한 매우 제약적인 것이어서 일정한 코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구조주의 이론가들과는 달리 에코는 코드의 개념에 과도하게 언어학적 함의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에코는 s-코드를 일반적인 의미의 코드와 구분한다. s-코드는 어떤 종류의 의미작용 혹은 전달 목적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체계 혹은 구조로, 대립적으로 구조화된 요소들의 한정된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소들의 한정적이고 무한정적인 연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결합법칙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¹⁹⁾ 소쉬르가 말한 기호들의 체계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코드는 에코가 생각하는 본래의 코드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코드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s-코드들이 다른 s-코드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내포적인 의미를 생성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앞서 예름슬레우가 제시한 내포기호학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내용-형식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예름슬레우가 그의 논의를 표현과 내용 간의 관계에 한정시킨 데 반해 에코는 코드의 개념을 보다 넓은 해석학적 맥락으로 풀어놓으려 한다. s-코드의 외연성이 다른 s-코드와 만나는 상황은 해석이 요구되는 가변성을 갖는데, 이러한 상황에 통용되는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s-코드가 아닌 진짜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텍스트나 담화를 해석할 때 그것의 s-코드만을 해석한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 해석이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텍스트나 담화는

19)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38.

어떤 경우든지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의미가 내포될 수밖에 없는 언어가 갖는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드는 자연스럽게 퍼스가 말한 세미오시스에서 해석소를 생산하듯이, 상황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다. 에코는 퍼스의 세미오시스가 갖는 해석학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가 말한 해석소가 너무 넓은 범주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릴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기호학적 행위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어반복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²⁰⁾ 다시 말해 그는 해석소의 개념을 어떤 제약 속에서 쓰고자 하는데, 가령 그가 제시한 코드이론에서 해석소는 다음과 같은 기호학적 범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²¹⁾

- 1) 다른 기호-운반체들을 통해 제시된 하나의 문화적 단위로 이해되고, 그리하여 첫 번째 기호-운반체와는 독자적인 의미론적 독자성을 보여주는 기호-운반체의 의미
- 2) 하나의 문화적 단위가 그것에 의해 본질적인 의소 성분, 혹은 의미론적 표지들로 분절되고 그리하여 그것에 대한 ‘독해들’의 합병을 통해 상이한 맥락적 조합들로 들어갈 수 있는 ‘의미소’들로 제시되는 내포적이거나 구성적인 분석
- 3) 의미소의 구성 수형도를 구성하는 단위들 각각, 차례로 그것의 고유한 구성적 분석에 개방된 또다른 문화적 단위가 되는 모든 단위(혹은 의소 혹은 의미론적 표지)

여기에서 그가 말한 해석소는 의미이기도 하고 분석이기도 하며 의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에코가 말한 코드 이론에서 적출될 수 있는 것은 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체계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곧 에코가 비록 코드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20) Ibid., p.71.

21) Ibid., p.72.

코드가 갖는 생산성을 해석소가 갖는 생산성으로 전환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에코는 문화적 단위를 강조한다. 문화적 단위라는 말은 구조주의적으로 본다면 모순된 것이다. 먼저 ‘문화적’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다. 만일 구조주의자라면 ‘문화적’이라는 말은 그와 구조적 대립관계를 갖는 것으로 설정된 ‘자연적’이라는 말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에코는 ‘문화적’이라는 말이 갖는 모호한 함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위’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러한 문화가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구조주의적 명제를 끌어들이는다. 이것이 에코가 표방하는 교묘한 절충주의이다. 어쨌든 이와 같은 코드가론에서 그가 해석소로 작용하는 코드를 기술한 것은 앞서 구조주의 이론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코드가 해석소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해석소를 코드로 환원시킨 것이 아니라 코드가 갖는 해석소로서의 자질을 부각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적어도 해석소가 문제되는 한, 그러한 해석소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코드의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에코에게 코드가 언어학적인 것에 그치지 않음은 그가 코드를 말하며 쓰는, ‘강한 코드’나 ‘약한 코드’와 같은 말에서도 알 수 있다.²²⁾ 강한 코드는 사회적으로 강한 강제성을 지닌 코드이며 약한 코드란 그 강제성이 약한 경우를 말한다. 많은 경험에 의해 축적되고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호해석의 규칙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강한 코드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이기보다는 개인적 해석에 의존하는 모호한 코드는 약한 코드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칸딘스키나 폴록이 그린 추상적 그림은 사회적 관습에 의존하여 쉽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코드에 속한다. 약한 코드는 강한 코드에 비해 더 많은 해석을 요구하며, 약한 코드에 의해 지배되는 텍스트는 따라서 보다 열린 텍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에코가 말한 이러한 강하고 약함이 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22) Umberto Eco,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pp.36-39.

양향대립의 향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의 기호가 갖는 필연성의 조건은 이러한 강하고 약한 코드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며, 이는 가장 강한 종류의 코드화로부터 가장 비결정적이고 약한 코드화에 이르는 일종의 연속체를 구성한다.²³⁾ 에코는 기호학의 임무가 이러한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 작용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라 했는데, 이러한 규칙은 물론 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언어학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산출하는 추론의 형식에 있는 것이며, 이는 가추법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²⁴⁾

가추법적 추론을 코드 생성의 핵심에 놓는 에코의 이론은 곧 퍼스 기호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퍼스가 제시한 유명한 가추법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이 가방에서 나온 모든 콩들은 희다
 이 콩들은 희다
 이 콩들은 이 가방에서 나왔을 것이다²⁵⁾

먼저 ‘이 가방에서 나온 모든 콩들은 희다’는 전제가 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완전히 검증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연역법에서의 전제였다면 ‘이 가방 안의 콩들은 모두 희다’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가추법의 전제는 경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본 사실 즉 이 가방에서 나온 콩들이 희다고 해서, 그 가방 안에 모든 콩들이 희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앞서 에코가 말한 코드와 같은 것이 추출되는 것 역시 이러한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이미 검증된 확고한 규범이 있고 그것이 모든 경우를 지배하는 연역법적 추론의 과정은 어떠한 맥락도 고려되지

23) Ibid., p.38.

24) Ibid., pp.38-39.

25) Eds.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374.

않기 때문에 코드가 생성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다음 내가 본 ‘경우’ 즉 ‘이 콩들은 희다’에서 이 콩이 흰 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이 콩을 해석하려는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도 아직 콩들의 성격이 확실히 규정되지 않는다. 이를 달리 말하면 내가 본 어떤 현상을 놓고 거기에서 코드를 추론할 때, 그 중 하나의 경험적 사실이 꼬투리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희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콩에서 포착한 경험적 사실로 앞서의 경험 즉 ‘이 가방에서 나온 모든 콩들은 희다’를 이끌어들이다. 이로 인해 내가 내린 결론 즉 ‘이 콩들은 이 가방에서 나왔을 것이다’는 한번의 추론을 거친 것이지만, 그 추론은 앞서의 과정에서 보았듯, 여러 맥락이 고려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맥락에 따라 달리 추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결론이 또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가추법은 확고한 결론은 없이 언제나 순환적인 추론을 통해 그 결론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추법이 코드의 생성에 작용한다는 가설은 에코가 말한 과대코드화(overcoding)와 과소코드화(undercoding)와 같은 코드 생성의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대코드화란 이미 존재하는 코드로부터 보다 분석적인 하위코드로 진행되는 코드 생성을 말하는 것이고, 과소코드화란 아직 존재하지 않은 코드로부터 잠재적인 코드로 진행되는 코드의 생성을 말하는 것이다.²⁶⁾ 예를 들어 보자. 인간을 설명하는 아주 일반적인 코드들이 있다. 예를 들어 호모 파베르니 호모 루덴스니 하는 인간을 규정하는 말에는 인간을 이와 같이 일반화시키려는 코드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만일 ‘한국인’을 코드화하려 한다면, 여기에는 한국인만의 특성을 드러내는 하위코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하위코드는 보다 일반적인 코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놀이를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놀이본성은 특별할 수 있다.

26) Eco, op.cit., p.136.

이것이 놀이의 하위코드를 생성한다. 이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 국지화시키는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그간 생성한 놀이문화가 참조된다. 이것은 맥락이 코드생성에 관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을 에코가 말한 과대코드화라 한다면 과소코드화란 아예 처음부터 코드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인의 놀이문화 코드를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이 생성할 수 있다. 한국인과 어울리고 같이 술마시고 춤추고 노는 과정에서 차츰 한국의 놀이문화는 이런 것이라는 코드화가 진행된다. 당연히 이 경우 그가 경험한 문화의 맥락이 작용하면서 잠재적인 하위코드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퍼스가 말한 해석소를 산출하는 작용으로서의 세미오시스를 토대로, 이를 제약하는 여러 코드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기술하려는 에코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에코의 기호학에서 말하는 코드는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코드와는 달리 규범적인 의미보다는 생성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국지성을 가짐으로써, 보편적인 ‘글로벌’의 개념보다는 특수화된 ‘로컬’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에코는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달 행위 혹은 어떤 다른 지적 생물학적 혹은 기계적 면모도 그것의 필요조건으로 의미작용 체계를 전제한다”²⁷⁾고 단언한 바 있는데, 이는 그가 해석이 토대가 되지 않는 전달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에코의 기호학에서 이 세상의 모든 텍스트들은 그 나름의 기호작용을 하는데, 이는 기호들이 현실의 수없이 많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각기 국지적으로 의미를 발현하는 장관을 연출하는 것이다.

5. 통합의 메타언어를 위하여

글로벌 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단지 경제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 안

27) Ibid., p.9.

된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미디어 전반에 걸쳐 ‘글로컬’은 하나의 보편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컬’을 구성하는 ‘글로벌’과 ‘로컬’은 단지 지역적인 함의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사유 안에서 이들을 구성하는 여러 의소들을 추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호학의 두 가지 흐름이 이들과 연루되는 지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양향대립의 항들이 단지 형식적인 대립관계가 아닌 통합적인 관계로 기술됨으로써, 현실을 보는 구체적인 지평이 확대됨을 확인하게 된다. ‘글로컬’은 ‘글로벌’이나 ‘로컬’의 적당한 합성이나 절충이 아닌 새롭게 구성된 메타언어이다. 이는 그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합당성을 토대로 한다. 앞서 두 개의 기호학적 흐름이 각각 상대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그 이론을 확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글로컬 시대에 ‘글로벌’이나 ‘로컬’이 그저 지역성의 문제에만 국한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글로벌’과 ‘로컬’ 그리고 그것을 통합한 ‘글로컬’의 새로운 흐름은 그것과 연루된 많은 인식론적 문제를 촉발한다. 이것이 바로 앞서 논의한 기호학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글로컬 시대는 앞으로도 수많은 새로운 기호학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모순의 통합을 내세우는 ‘글로컬’의 정신에 내재한 씨앗이 발아하는 과정들이 될 것이다.

- Chatman, Seymour.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 Eco, Umbert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 _____.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 Greimas, A.J. *Du sens*, Paris: Seuil, 1970.
- Greimas, A.J. & Courtés, Joseph. *Semiotics and Language: An Analytical Dictionary*, trans. Larry Crist and Daniel Patte, and other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 Ed. Hardwick, Charles S. *Semiotic and Signifys: The Correspondence between Charles S. Peirce and Victoria Lady Welb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7.
- Eds. Hartshorne, Charles & Weiss, Paul.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Hjelmslev, Louis. *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trans. Francis J. Whitfield,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9.
- Jakobson, Roman. *Selected Writings 1,2*, The Hague: Mouton, 1971.
- _____. *Language in Literature*, eds. Krystyna Pomorska & Stephen Rud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Lotman, Yuri. M.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trans. Ann Shukma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 Saussure, Ferdinand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84.
- (Eds.)Wilson, Rob & Dissanayake, Wimal. *Global/Local: Cultural Production and the Transnational Imagina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ABSTRACT〉

On Some Semiotic Issues in Glocal Age

Hyosup Song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some semiotic issues that are related to methods by which global value and local value are combined in this glocal age. There have been two dominant semiotic trends and now many semiotic theories are created by integrating these two opposite trends. Semiotic methodologies combining these opposite theories can give some suggestions to elucidate how the global and the local are integrated in new term 'glocal', in that semantic elements abstracted from two semiotic theories are also found in terms referring to global and local value respectively.

Two opposite semiotic trends came from Saussurean structuralist semiology and Peircean pragmatic semiotics. These two theories have completely different premises, but today many semiotic scholars tries to combine these two by creating new meta-theories. This paper will discuss two opposite meta-theoretic trends, one is structuralist trends expanding to pragmatic area, and another is pragmatic trends adopting some structuralist premises. This will give some suggestions to explain how the global and the local are integrated in the meta-term 'glocal'. In order to avoid some strict dogma and get some more practical ideas, there need some theoretical compromise and adjustment with real situations. Semiotic meta-languages dealt in this paper can give some suggestions to methodological problems for these compromise and adjust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for integration in semiotics imply some important methodological issues for definition of 'the glocal', because the term 'glocal' is deeply implied to various issues of human communication and signification that are mainly investigated in semiotics.

Key words : globalization, localization, glocalization, structuralism, pragmatics, semiotics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12.5 / 게재확정일 : 8.10
--